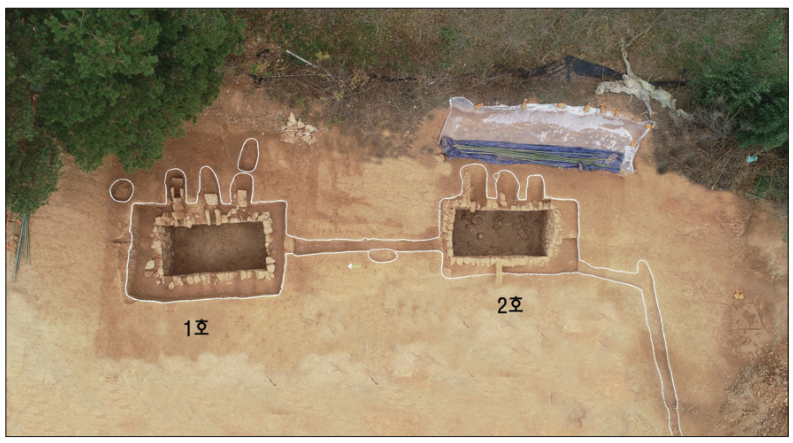
익산서 백제 대형 석축 저온 저장고 확인

서동역사공원 조성 부지서 2기 확인 · 시민에 공개… 공기 배출용 통기구까지 갖춘 첨단 기술 집적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이 익산시(시장 정헌율)와 함께 고도보존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동역사공원 조성 부지에서 백제의 대형 석축 저온저장시설이 확인됨에 따라 지난 24일 오후 2시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발굴조사를 담당한 (재)전북문화재연구원 이사장(최완규)에 따르면 2기의 저온 저장고 외에도 굴립주건물지 3동, 구상유구(溝, 도랑) 1기, 조선시대 기와가마 5기 등 16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굴된 저온 저장고는 총 2기로, 국내 최초로 외부 공기가 드나드는 통기구(通氣口)까지 갖추고 있으며, 기반토인 풍화암반층을 직사각형으로 굴착 후 그 안에 잘 다듬어진 석재를 조밀하게 쌓아 벽체를 구성한 구조이다. 1호는 길이 4.9m, 너비 2.4m, 높이 2.3m이고, 2호는 길이 5.3m, 너비 2.5m, 높이 2.4m로, 두 기가 거의 비슷한 규모이다.



문화재청이 익산시와 함께 고도보존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동역사공원 조성 부지에서 백제의 대형 석축 저온저장시설이 확인됨에 따라 지난 24일 오후 2시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사진은 저온저장고 전경.

저장고 동쪽 장벽의 상부에는 각각 3조의 통기구가 설치된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들 통기구는 쪼갠 돌인 판석과 길게 다듬은 장대석을 사용하여 50cm 정도의 간격을 두고 밖에서 안으로 19°~23° 기울여 동쪽으로 돌출되게 만들어졌다. 이는 저장고 안의 더운 공기를 자연적으로 밖으로 배출하여 내부 온도를 차갑게 유지하기 위한 공법으로 판단된다.

바닥은 잡석과 사질점토를 섞어 반반하고 고르게 만들어 습기를 차단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대형 석축 저온 저장고는 치밀한 설계에 따라 건축된 당대 최고 과학기술의 집적체로 오늘날 냉장고와 같은 기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저온 저장고 내에서는 백제 왕궁(왕궁리유적)에서 출토된 유물들과 동일한 벼루편, 전달린토기편, 뚜껑편(蓋), 대부완, 배(杯), 암·수키와, 인장와(印章瓦) 등이 출토되었다. 특히 1호에서 출토된 보주형 뚜껑과 2호에서 출토된 대부완은 한 벌을 이루고 있고, 1호와 2호에서 출토된 호형 토기편은 서로 접합되는 것으로 보아 동시기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바닥면에서는 식물의 열매나 과실의 흔적인 종실유체도 검출되고 있는데, 1호에서는 참외, 들깨 등의 재배작물과 딸기속, 다래, 포도속, 산뽕나무와 같은 채집 종실류가, 2호에서는 참외, 밀, 조, 팥 등의 재배작물과 다래, 포도속과 같은 채집 종실류가 검출되었다.

지금까지 백제지역에서 발견된 저장고는 왕도였던 공주 공산성과 부여 관북리유적 등 궁궐로 추정되는 유적에서만 확인된 사실로 미루어보아 이번에 발견된 저온저장고는 왕실과 관련된 시설일 가능성이 높아 백제 왕실 문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문화재청과 함께 이번 발굴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유적의 진정성 있는 보존과 활용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며,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익산지역 백제왕도 핵심유적과 연계하여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할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예술의전당 개관 10주년 기획공연

창극 호랭이가 답싹 물어갈 뺑파야 · EBS 모여라 딩동댕 전석 무료 진행

군산예술의전당이 4월 봄날의 햇살 처럼 따뜻하고 유쾌한 기획공연 두 작품을 연이어 선보인다.

첫 번째 선보일 작품은 오는 4월 8일 15시 대공연장에서 전북도립국악원 창극단의 '호랭이가 답싹 물어갈 뺑파야'다. 이 작품은 심청전을 해학과 풍자를 가득 담아 재구성한 공연으로 현대적인 요소를 가미해 노령층부터 MZ세대까지 재밌게 관람할 수 있는 작품이다.

전라북도립국악원은 지난 1984년부터 39년동안 전라북도 한국음악의 맥을 이어 가고 있는 명실상부 우리나라 최고의 국악단으로 전주대사습놀이 등 국내 유수의 경연대회에서 수상경력을 자랑하는 단원들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뺑파역으로 창극단 지도위원인 김세미 소리꾼이 주역을 맞아 쉴 틈 없이 관객에게 웃음을 선사할 예정이다.

두 번째 작품은 어린이들의 히어로 번개맨을 만나 볼 수 있는 'EBS 모여라 딩동댕'이다. 모여라 딩동댕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공연과 춤, 노래, 다양한 지식, 무한한 상상력, 감성 등을 키워주며 많은 어린이의 사랑을 받고 있는 국내 지상파 TV 유일의 어린이 공개방송이다.

모여라 딩동댕은 4월 19일 14시, 16시30분, 19시 총 3회 공연으로 운영되며 관람권은 EBS홈페이지 공개방송 참여신청 게시판을 통해 신청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4월 5일부터 4월 11일까지 진행되며 당첨 및 티켓발권은 14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이헌현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개관 10주년을 맞아 4월에는 다양한 공연을 폭넓은 연령층에서 부담없이 선보일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하고자 이 두 작품을 기획공연으로 올린다"며 "이후에도 관객들이 웃을 수 있은 기획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함께 즐길 수 있는 10주년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 국립국악원, 교류 공연 '배뱅이굿' 열린다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과 국립국악원(원장 김영운)이 교류 공연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왔구나! 왔어!! 3인의 배뱅이'를 오는 4월 1일 오후 3시 국립민속국악원 예원당에서 펼친다.

이번 공연은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이 황해도 굿 음악을 판소리의 고장 남원에 찾아가 공연을 개최하는 것으로,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되었던 교류공연을 오랜만에 개최할 수 있게 되었다.

서도지역의 판소리라 할 정도로 극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는 '배뱅이굿'은 故 이은관 명인에 의해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판소리처럼 장구 반주에 1인 다역을 소화하는 소리꾼 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작품이다.

이번 무대에 올려지는 '왔구나! 왔어! 3인의 배뱅이'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단원 유지숙(국가무형문화재 서도소리 전수조교)을 비롯해 총 3명의 여자 소리꾼이 이끌어가며 기악, 연희단원들이 함께 무대를 꾸몄다.

'배뱅이굿'은 짧은 생을 살다간 문벌 높은 집안의 무남독녀 배뱅이가 상사병으로 죽자 배뱅이의 혼령을 위로하기 위한 넋풀이로, 엉터리 박수무당이 교묘한 수단과 거짓으로 재물을 차지한다는 내용이며, 생소한 내용이지만 서도소리 특유의 구슬프고 애잔한 소리와 유쾌한 재담이 어우러져 호남지역 시민들에게 색다른 매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부안군, 국립합창단 '흥겨운 합창여행' 31일 무료 공연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국립합창단 '흥겨운 합창여행'을 오는 31일 오후 7시 30분에 부안예술회관 2층 공연장에서 무료로 개최한다.

국립합창단은 '흥겨운 합창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오페라 합창, 클래식, 한국가곡 등 총 9개 곡을 합창독주와 함께 화려하고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국립합창단 단장 겸 예술감독인 '윤의중' 지휘자님을 포함한 총 65명의 단원이 참가하여 합창의 대중화에 힘쓰고자 기획되었다.

'흥겨운 합창여행'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는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의 일환으로 문화예술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개최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북지식살롱' 2회차 성황리 개최

인터브랜드 한국지사 정하진CD 소통 나서

'전북지식살롱' 2회차가 지난 22일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1층에서 약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이 행사는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와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가 공동 기획했다.

이는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와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가 공동 기획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전북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소위 '찐팬')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로컬 대표 커뮤니티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회차에는 세계 최대 브랜드 컨설팅 그룹인 인터브랜드 한국지사의 정하진CD가 'Creativity can change the world'를 주제로 소통했다. 인터브랜드 한국지사는 한국 관광을 대표하는 캐릭터 '깅덤프렌즈'를 비롯해 KIA 커뮤니케이션 시스템과 LG화학 패키지 디자인 및 시스템 등을 개발했다.

지난 3월 8일 시작된 '전북지식살롱' 1회차는 온보드 그룹의 서경종CD가 '지역의 가능성을 만드는 크리에이티브'라는 주제로 진행, 전북 '찐팬' 1호임을 인증했다. 서경종CD는 '범 내려온다'로 알려진 한국관광공사의 'Feel the Rhythm of Korea' 캠페인을 기획한 광고 전문가다.

한편 '전북지식살롱'은 4월에도 계속된다. 5일에는 KPR 김강진 이사(2022 대한민국광고대상 SNS부문 대상)가, 19일에는 전인건 간송미술관장(2022 국가브랜드 대상 한류 특별상 수상)이 전북을 방문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